

▶ 매일 INDEX



3면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위안부 운동 대의 지켜야”

2020년 6월 9일 화요일(음 4월 18일) 제2552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포스트 코로나 삼락농정이 답이다

전북 삼락농정운영협, 농업인 활로 모색 민관 협치
농축수산식품 집중 토론…3대 목표·5대 전략 도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판로 개척, 인력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민·유관기관·전문가·행정이 협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정 거버넌스인 '2020년 제1회 삼락농정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운영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 이상철 민관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47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상반기 10개 분과별 활동사항 및 하반기 계획,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 제정 추진 사항, 코로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뉴딜정책 등을 집중 토의했다.

이상철 민관위원장은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청정지역으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는 전북이 위기를 기회로 전화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위기에 강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육성을 비전으로 한 3대 목표로 온라인 판매 강화, 농업인력 지원체계 강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으로 농촌분야·농축산업분야·해양수산분야·농식품분야·제도개선 분야별로 17개 실행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실행과제로는 거시기 장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광역 푸드플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야별 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전국 최대 청년 청업농업인 282명 선정(18%), 전국 최초 농민 공익수당 지급(613억),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8개 품목) 등 농촌 현장에서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같은 성과를 위해 삼락농정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운영소위 2회를 비롯한 분야별 40여 차례의 위원회 활동 등 농정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왔다.

삼락농정위원회는 7월 중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제정해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랑찾는 농촌' 3개 분야 대상수상자를 선발해 매년 농업인의 날(11.11일)에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생명산업 선도와 농업 공익가치 제고에 공헌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수상자 예우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에 준용해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7기 도정의 첫 번째 목표를 삼락농정·농생명산

업으로 제시한 만큼,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발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청정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와 농업농촌의 새 가치를 만들어 가는 삼락농정이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주시와 노사발전재단이 참여하는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전주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과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대·전주시·노사발전재단 전주형 일자리 만들기 '손잡았다'

노사상생형 탄소산업 분야 맞춤형 모델 발굴 업무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주시와 노사발전재단이 참여하는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 전주형 사회통합 일자리 모델과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의 노사발전재단 전북대학교는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탄소산업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체준호 교수(경영학과)는 "대학과 지역단체, 전문기관 등이 협업해 전주를 대표하는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조재영)과 전주시 노사발전재단은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노사민정 논의 기구를 구축해 전주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일자리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8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민·유관기관·전문가·행정이 협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정 거버넌스인 '2020년 제1회 삼락농정 운영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지락 국산종자 생산기술 확보 사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북도가 국내산 바지락 종자 생산 감소에 따른 중국산 바지락 종자 의존도가 더욱 심화돼, 중국산 종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종자 생산기술 확보 및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전국 바지락의 70~80%

생산하는 곱소만이 위치, 바지락 양식에 중요 역할을 수행, 2019년도에는 1

만7,162톤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 2만

인의 시험연구를 통해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평균 약 100만마리 생산방류, 2018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 2회 생산(춘·추계)기술을 확립, 2019년부터는 연간 1000만마리 생산방류해 약 10배의 비약적인 기술성장을 이뤘다.

또한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기술을 바탕으로 '19~21년(3년)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한 중간양성 기술개발을 위해 약 5,000㎡ 크기의 양식장을 연구소 인근에 조성, 1㏊ 크기로 양성하는 중간양성 기술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
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